인문논총 80권 3호(2023. 8. 31), pp. 183~213
[DOI] https://doi.org/10.17326/jhsnu.80.3.202308.183

관악산 자하동의 인문경관과 자하 신위

이종묵*

초록 이 논문은 관악산 북쪽 자하동(紫霞洞)의 인문경관을 자하동의 주인 신위(申緯)를 중심으로 하여 살핀 글이다. 관악산은 정상의 연주대(戀主臺) 아래 동서남북 네 곳의 계곡을 자하동이라 불렀는데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자하동으로 불리는 북자하동을 다루었다. 자하동의 인문경관은 17세기 말엽 평산 신씨 집안인 신여석(申汝晳)과 신여철(申汝哲) 형제가 이로당(二老堂)과 일간정(一間亭)을 경영한 데서 시작하였고, 그 후손인 신위가 이 자하산장(紫霞山莊)을 물려받음으로써 19세기 전후한 시기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젊은 시절 신위는 벗 서영보(徐榮輔)를 불러 함께 시를 지었고, 서영보는 자하동의 인문경관을 아름다운 산문으로까지 남겼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공간을 문학 작품과 함께 1796년 정수영(鄭遂榮)이 그린 그림, 1912년 작성된 지적도와 1913년 측량한 1/5만지도, 1950~1960년대 촬영된 사진 등의 자료를 동원하여 재구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대 인문대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신위의 흉상과 시비 등의 경위와 내용을 소개하여 자하동이 인문경관을 갖춘 공간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였다.

주제어 인문경관 자하동(紫霞洞) 이로당(二老堂) 일간정(一間亭) 신위(申緯) 서영보(徐榮輔)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설

조선시대 관악산은 개성의 송악산(松岳山), 가평의 화악산(華岳山), 파주의 감악산(紺岳山), 포천의 운악산(雲岳山)과 함께 경기도 오악(五岳)의 하나였다. 도처에 기암괴석이 있기에 소금강(小金剛), 혹은 서금강(西金剛)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산천의 제사를 올리던 신성한 공간이었다. 인적이 드물었기에 죄를 짓고 도망쳐 들어간 도적들이 살기도 하였다.[1]

관악산은 이름이 높았지만 우리 문헌에 문학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은 과천에 살던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시문부터이며, 이후 젊은 시절 관악산의 효일사(曉日寺)와 관악사(冠岳寺)에서 학업을 익힌 성간(成侃, 1427~1456)이 최초로 관악산 유기(遊記)를 남겼고 그 아우 성현(成俔, 1439~1504) 역시 관악산 정상의 영주암(靈珠菴)에 올라 장편의 시에 관악산을 담아 낸 바 있다.[2] 이후 산수에 벽이 있는 문인들에 의하여 관악산은 거듭 빛을 발하였다.

관악산은, 바위봉우리로는 연주대(戀主臺)가 가장 빼어나고 계곡으로는 자하동(紫霞洞)이 최고 명승으로 평가되었다. 1707년 4월 관악산을 오른 이익(李瀷, 1681~1763)은 승려의 말을 인용하여 관악산의 명승을 이렇게 적었다.

> 산에는 영주대(靈珠臺)가 있는데 실로 가장 높은 봉우리지요. 산의 빼어남이 이곳보다 나은 곳은 없답니다. 다음은 자하동인데, 자하동이라고 이

1 관악산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는 김은정(2001), 「관악산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한국한시연구』 9) 정도만 확인된다. 자하동은 이종묵(2006), 「자하동의 역사와 자하 신위」(『조선의 문화공간(4)』, 휴머니스트)에서 다룬 바 있는데, 신위의 삶은 줄이고 자하동 관련한 자료를 보태어 다시 집필한 것임을 밝혀둔다. 신위의 생애와 한시는 이현일(2006), 「紫霞詩 硏究」(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에 자세하다.

2 卞季良, 『春亭集』 권1 「登冠岳寺」; 成侃, 『東文選』 권82 「遊冠岳寺北巖記」; 成俔, 『虛白堂詩集』 권1 「登冠岳山, 到靈珠菴」.

름한 곳은 넷이지요. 불성암(佛性庵)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곳을 남자하라 하고, 남쪽에서 서쪽으로 돌아들어가는 곳은 서자하라 하는데 모두 일컬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영주대 북쪽이 북자하인데 자못 깔끔하기는 하지만, 동자하의 기이한 볼거리보다는 못하지요. 못도 있고 폭포도 있어 영주대에 버금갑니다. 나머지 사찰이나 봉우리 중에도 종종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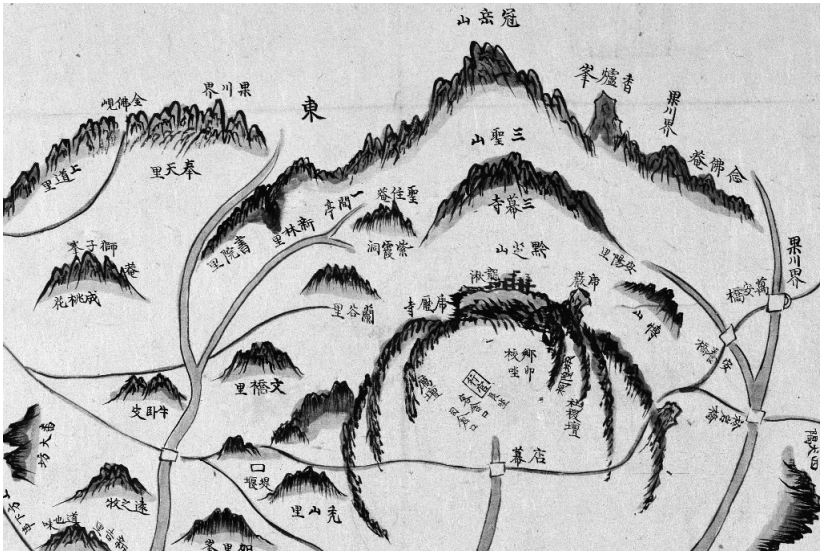
연주대는 영주대(靈珠臺), 염주대(念主臺)라고도 하였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야 연주대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성현의 시를 보면 영주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지금의 연주암일 것이다. 또 연주대 옆의 큰 바위를 차일암(遮日巖)이라 불렀다. 채제공(蔡濟恭, 1720~1799)에 따르면, 차일암은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이야기가 서려 있다.[4] 양녕대군은 아우 충녕대군(忠寧大君)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성군 세종이 되도록 한 인물이다. 동궁의 자리를 양보한 양녕대군은 관악산에 올라와 살았다. 늘 대궐이 그리워 바위 위에서 북쪽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뜨거워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바위 귀퉁이에 구멍을 파고 장막을 쳤다. 그래서 차일암이 되었고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뜻에서 연주대가 되었다. 바위 귀퉁이에 차일의 기둥을 박았던 구멍도 18세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노론의 적통을 이은 19세기의 학자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은 연주대의 전설을 이와 다르게 설명하였다.[5] 고려의 유신(遺臣)으로 남았던 남을진(南乙珍), 조견(趙狷), 서견(徐甄) 세 현자가 세상을 피하여 스스로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깎고 삼성산(三聖山)으로 들어가 삼막사(三幕寺)를 짓고 개성의 곡령(鵠嶺)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였기에 연주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후대 불가(佛家)의 말을 빌려 연주대를 영주대(影炷臺)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그에 앞서 이익은 절벽에 불상을 새기고 다시 바위로 처마를 만들

3 李瀷, 『星湖全集』 권53 「冠岳山記」.

4 蔡濟恭, 『樊巖集』 권35 「遊冠岳山記」.

5 洪直弼, 『梅山集』 권29 「遊三藐記」.



[그림 1] 「시흥현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72): 검지산과 삼성산에서 내려온 개울이 일간정 앞에서 만나고 관악산에서 내려온 개울과 다시 우와피에서 만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관악산에서 내려온 개울이 봉천리를 지나는데 탑동 곧 낙성대다.

어 보호하였는데 바위에 의지하여 단을 쌓았으며 돌을 포개고 흙으로 메워 백여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다고 하고, 바위 끝에 또 구멍을 파서 등불을 넣어두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도성 안에서도 그 빛이 보이도록 한 것으로, 개국 초 불교를 숭상할 때 일인 듯하다고 하였다.[6] '영주'(影炷)라는 말이 이와 부합한다.

1872년 제작된 「시흥현지도」(始興縣地圖)에는 오늘날의 상도동인 원지목(遠之牧)과 보라매공원의 언덕을 이르는 우와피(牛臥皮)를 거쳐 서원리(書院里), 신림리(新林里)를 거쳐 자하동에 이르는 코스를 표시하고 있다. 삼성산(三聖山)의 성주암(聖住庵)과 삼막사(三幕寺)를 거쳐 능선으로 관악산의 정상 연주대에 이르는 것이 조선시대 관악산 등반의 일반적인 코스였다.

---

6 李瀷, 「冠岳山記」.

조선시대 관악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 정도에 그친다. 이 글에서는 이익이 이른 북자하에 주목한다. 북자하는 오늘날 서울대학교가 자리한 곳으로, 이 지도에서 보듯 자하동으로 불렸다. 지도에 보이는 일간정(一間亭)도 관악산의 인문경관 중 하나였거니와, 조선말기 시서화(詩書畵)에 모두 능해 삼절(三絕)로 기림을 받은 신위(申緯, 1769~1847)의 전장이 자하동에 있었다. 신위의 호 자하(紫霞)가 바로 자하동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증명하기 어렵지만 자하동은 잣골을 우아하게 일컬은 이름인 것 같다. 이 글은 신위 집안을 중심으로 관악산 자하동의 문화사를 정리하려는 목적에서 집필한 것이다.

2. 17세기 자하동과 이로당

연주대가 관악산에서 가장 경관이 빼어나지만, 사람이 살 곳은 아니다. 명상 유성룡(柳成龍, 1542~107)이 20세 때 관악산에 들어가 궁벽한 암자에서 독서하였다고 하지만[7] 그리 오래 머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관악산 기슭의 빼어난 골짜기 자하동에는 이름난 문인들이 살아 그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남자하동은 삼성산 아래 오늘날 안양 쪽 계곡을 이른다. 채유후(蔡裕後, 1599~1660)가 남자하동에 초가를 엮고 살았다는 기록이 18세기 편찬된 『여지도서』(輿誌圖書)에서 확인된다.[8]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명오지」(名塢志)에는 논밭이 척박하기는 하지만 경관이 뛰어나 도성의 고관들이 많이들 산다고 하였는데,[9] 동자하동 곧 오늘날 과천 쪽을 이른다.

북자하동은 윤두수(尹斗壽, 1533~1601)와 그 손자 윤신지(尹新之, 1582~

---

7 이긍익, 『연려실기술』 18권, 「선조조 고사본말」.

8 문용식 역주(2009), 『輿誌圖書(2)』(흐름).

9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64 「名塢志」.

1657)가 초가집을 짓고 산수를 사랑하면서 살았지만 특히 조선후기에는 그 주인이 평산 신씨(平山申氏) 집안이었다. 1786년 채유후의 족손인 채제공이 관악산을 올랐다. 채제공은 관악산을 오르면서 남인 학맥의 큰 봉우리라 할 만한 허목(許穆, 1595~1682)을 생각하였다. 예순일곱의 고령에 관악산에 오른 채제공은 허목이 여든 셋에 관악산 정상에 올랐는데, 발걸음이 나는 듯하여 사람들이 신선처럼 바라보았다고 하면서 부러워하고 그 자신도 그 나이에 관악산을 오르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허목만큼 장수를 누리지 못해 불행히 이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무튼 채제공은 관악산을 다녀와서 적은 자하동 평산 신씨의 전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 자하동에 들어가 일간정(一間亭)에 올라 쉬었는데 정자는 곧 신씨(申氏)의 전장이다. 계곡물이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데 숲이 뒤덮고 있어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물길이 정자 아래 이르러 바위를 만나게 되는데, 날리는 것은 포말이 되고 고이는 것은 푸른빛을 이루다가 마침내 넘실넘실 흘러 골짜기 입구를 에워싸고 멀리 떠나간다. 마치 흰 명주를 깔아놓은 듯하다. 언덕 위에 철쭉꽃이 막 피어, 바람이 불면 그윽한 향기가 때때로 물을 건너 이른다. 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원하여 멀리 떠나온 흥취가 인다.[10]

일간정은 앞서 본 「시흥현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정자였다. 일간정의 주인은 신여석(申汝晳, 1632~1695)과 신여철(申汝哲, 1634~1701) 형제였다. 임진왜란 때 배수진을 치고 장렬하게 전사한 신립(申砬)의 큰아들 신경진(申景禛)이 신준(申埈)과 신해(申垓) 두 아들을 낳았는데 신준의 후손이 신완(申琓), 신성하(申聖夏), 신정하(申靖夏) 등이다. 신해는 계부 신경인(申景禋)의 후사로 들어갔고, 그 아들이 바로 신여석, 신여철이다. 신여석의 첫째 아들이 신탁(申琢)이요, 강화학파(江華學派)의 학자로 알려진

10 蔡濟恭, 「遊冠岳山記」.

신대우(申大羽), 신진(申縉)과 신작(申綽)이 증손과 고손이다. 신여석의 둘째 아들이 신확(申瓁, 1652~1698)이고 고손자가 신위다.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은 신여석과 신여철 형제를 위해 아들 신확이 세운 이로당(二老堂)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두 형제가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길을 나서 두루 둘러보고 배회하며 마음대로 하였다. 반드시 술동이를 가지고 술을 따라 간간이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여 즐거움을 보태었다. 허연 수염에 붉은 뺨으로 서로 마주 보고 마루에 쓰러지곤 하였다. 자제들과 빈객들이 이를 좇았다.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기도 하고 하룻밤을 묵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비단 같은 봄꽃이며 그림 같은 가을 단풍, 여름이면 옥을 뿜는 폭포, 겨울이면 온통 하얗게 쌓인 눈과 얼음, 저물녘의 안개와 가랑비, 새 울음소리에 노니는 물고기, 이들 어느 하나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슬픔을 풀어줄 거리가 아닌 것이 없었다. 남여(籃輿)와 필마(匹馬), 죽장망혜(竹杖芒鞋)가 빼어난 곳을 노니는 도구였을 뿐이다. 이러한 말을 듣는 이들이 모두 탄식하곤 하였다. 이같이 산 것이 십수 년이었다.
>
> 신공의 둘째 아들 신공미(申公美, 申瓁)가 근처에 집을 짓고 만오(晩悟)라 이름하였다. 벽에 '제일계산'(第一溪山)이라 큰 글씨로 네 글자를 썼다. 두루 꽃나무와 대추나무, 밤나무를 심었으며, 작은 초가 정자를 하나 지어 폭포를 내려다보게 하였다. 계곡이 깊숙하고 이리저리 꺾여 있는데 물은 옥소리처럼 맑게 울렸다. 마치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듯하였다. 이윽고 신공 형제가 돌아가시고 신공미가 이어 노닐었으니 그 또한 여러 해가 되었다. 내 행적이 그사이 조정에서 편안하지 못하면, 이곳에 나아가 임시로 거처하면서 그 계곡의 빼어남을 보고, 신공 형제가 우아하게 한가함을 즐기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탄식하고 흠모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11]

---

11 崔錫鼎, 『明谷集』 권9 「二老堂記」.

[그림 2] 서울특별시(2012),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 2012 서울사진축제』

최석정은 이 집안과 세교가 있었기에 신확이 죽은 후 신탁의 아들 신필하(申弼夏)의 청을 받아 이 기문을 썼다. '이로'는 신여석과 신여철 두 늙은이의 집인데 형제가 같은 집에 나란히 늙어 가고자 하는 뜻을 표한 것이다. '만오'는 잘못을 느지막이 깨달았다는 말로 도연명(陶淵明)이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지금이 바르고 예전이 잘못임을 깨달았다"(覺今是而昨非)라고 한 뜻과 다르지 않다. 신확이 이를 당호로 삼았으니 은일의 뜻을 알겠다.[12] 최석정은 신확이 쓴 이로당과 만오당의 현판을 보고 감탄하였다. 그리고 '제일계산'이라 쓴 글씨를 바위에 새기고 신확이 만든 초가 정자에는 벽류정(碧流亭)이라 이름을 붙이겠노라 하는 것으로 글을 마쳤다. '제일계산'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최석정의 글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벽류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 정자는 후에 일간정으로 굳어진 것 같다.

12 신확이 이로당과 만오당을 경영한 일은 崔錫鼎, 『明谷集』 권24 「延安府使申公墓碣銘」에도 밝혀져 있다.

이로당은 지금의 서울대 대운동장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7년 서울CC가 들어서기 이전의 모습을 담은 김운기의 사진이 전하는데, 지형을 보면 대운동장에 있던 마을이 자하동이고 우측에 보이는 기와집이 이들 평산 신씨 집안의 건물일 것 같다.

신여석과 신여철은 이렇게 살다가 자신이 사랑하던 땅 자하동에 묻혔다. 서울대학교가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무덤이 옮겨졌는데 문인석이 오늘날 서울대학교 문예관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신확의 묘소에 있던 문인석은 서울대학교 박물관 정원에 놓여 있다.

3. 신위의 젊은 날과 자하동

17세기 신여석, 신여철 형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하산장(紫霞山莊)은 그 후손에게 전해졌다. 신여석이 성천부사(成川府使)를 지냈고, 그 아들 신확이 연안부사(延安府使)를 지냈으며 다시 그 아들 신석하(申錫夏)는 비록 일찍 죽었지만 그 아들 신유(申曘)가 첨정(僉正)의 벼슬을 하였고, 다시 그 아들 신대승(申大升)이 강화유수, 성균관 대사성, 사헌부 대사헌과 사간원 대사간을 지내면서 이 집안이 다시 번창하였다. 신대승의 아들이 신위다. 신위는 자가 한수(漢叟), 호는 자하(紫霞)와 경수당(警修堂)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17~18세에는 홍전(紅田)이라는 호도 사용하였다.

자하산장을 물려받았기에, 신위는 젊은 시절부터 관악산 자하동과 익숙하였다. 16세 때는 자하산장에서 독서를 하였다. 이 시절부터 호고(好古)의 취미가 있었기에, 인근 고려시대 성씨(成氏) 성의 시중 무덤이라 전해지는 곳 근처에다, 사발에 글을 써서 파묻은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건륭(乾隆) 병오년(1785) 가을 자하동주(紫霞洞主) 신한수(申漢叟)가 국사봉(國士峯)에 올라 고려 무덤에 조의를 표한다. 마침내 이 언덕에 와서 마음으로 즐기고

기문을 적어 사발을 묻는다. 송성기(宋聖起)도 함께 왔다."라고 적었다.[13] 국사봉은 삼성산 북쪽 봉우리로 지금은 국기봉이라 부른다. 이 정상에 올라 쓴 시에서 "분청색에 꽃문양 비색 자기 나왔으니, 골짜기 절간은 옛일이 서글퍼라"(粉靑花朶秘甕出 陵谷禪扃事可哀)라 하고, 그 주석에서 오래된 절터 북쪽에서 비색 자기를 얻었다고 하였다.[14] 당시까지 국사봉 절터에 고려자기가 제법 묻혀 있었음을 알겠다.[15] 신위는 1827년 아내 조씨(曺氏)를 잃었는데 조씨는 명필 조윤형(曺允亨)의 딸이다. 신위는 조씨의 무덤을 이곳에 쓰고 자신도 같은 곳에 묻힐 생각을 하였다. 그만큼 자하동 남쪽 국기봉이 신위에게 의미가 큰 곳이었다.

신위가 젊은 시절의 시를 모은 『분여록』(焚餘錄)에 자하동에서 지은 시임을 표방한 시가 한 수 실려 있다. 「자하동의 일을 적다」(紫霞洞書事)를 보인다.

> 10리 먼 논밭에 관개를 하느라
> 남녀가 험벽한 곳을 뚫고 다니네.
> 아이가 울며 방에 누워 있는데
> 범 다니는 곳에 문을 걸지 않았네.
> 十里事灌溉 男女衝荒險
> 兒啼臥在房 虎行門未掩[16]

험하고 외진 땅에 남녀가 들일을 하느라 아이가 혼자 방에서 울고 있다. 관악산 자하동은 범이 돌아다니는 궁벽한 땅이었다.

---

13 申緯, 『警修堂全藁』 책13 「水鑑先生歌」.

14 申緯, 『警修堂全藁』 책15 「國士峯絕頂登眺」.

15 趙絅, 『龍洲遺稿』 권12 「冠岳寺古銅罏跋」에 따르면 趙絅이 1616년 남자하동의 佛聖寺에 머물 때 至正 연간(1341~1367)에 제작된 청동화로를 보았다고 한다.

16 申緯, 『警修堂集』(규장각 소장) 『焚餘錄』 권1 「紫霞洞書事」.

젊은 시절 신위와 가장 절친한 벗은 송희정(宋喜鼎)과 서영보(徐榮輔, 1759~1816)였다. 송희정은 앞서 국사봉에 함께 오른 벗이다. 신위보다 열 살 연상이었던 서영보는 당시 부평(富平)의 계양산 아래 오곡(梧谷)에 살고 있었는데, 자하동과는 40리가 떨어져 있었다. 서영보는 1786년 신위의 손에 끌려 자하동을 찾아 청춘을 누렸다.

아침에 자하객을 따라
저녁에 자하동에 왔네.
붉은 노을도 사람을 따라와서
아침저녁 오색 비단 펼쳐 보이네.
아침노을이 어찌 저녁노을만큼 고우랴마는
유람객이 밤에 자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
개울 따라 긴 여울물 소리를 귀로 듣노라니
물가 언덕의 졸던 달이 중천에 올라 푸르네.
朝隨紫霞客 暮至紫霞里
紫霞亦隨人 朝暮散成綺
朝霞何似暮霞佳 遊人暝投還晨起
沿澗耳聞瀨聲長 亭皐睡月空翠裏[17]

'자하'(紫霞), '조'(朝)와 '모'(暮)라는 시어를 거듭 써서 흥을 돋우었다. '모'와 '조'를 '암'(暗)과 '신'(晨)에 호응하게 하면서 늦게까지 노을을 보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 노을을 즐기는 흥이 묘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개울을 따라 오르내리며 긴 여울물 소리를 듣다 보니, 동산에 걸려 주춤하던 달이 어느새 중천에 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 자하동의 풍광과 흥취를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서영보가 자하동을 나서면서 지은 작품도

17 徐榮輔, 『竹石館遺集』 1책 「爲漢叟所引, 入紫霞洞一宿」.

명편으로 꼽을 수 있다.

> 일간정에 폭포 소리가 울리고
> 이로당 터에 붉은 잎 쌓이는데,
> 빈산의 풍경 소리 자네 듣게 보내고
> 잠시 산방에서 묵었다가 돌아 나온다.
> 一間亭子飛泉響 二老堂基紅葉堆
> 空山風珮輸君聽 暫宿山房卽便廻[18]

일간정과 이로당을 거쳐 자하동을 나서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를 벗만 즐기라 하고 자신은 발걸음을 돌린다. 멋진 표현이다. 자하동의 동주(洞主) 신위를 존중하는 마음이 읽힌다. 서영보는 이때의 자하동 유람을 멋진 산문 「자하동을 유람한 기문」(遊紫霞洞記)에 담았다. 위의 시에 보이는 일간정과 이로당을 위시한 자하동의 아름다운 풍광이 운치 있게 묘사되어 있다.

> 관악산과 검지산(黔芝山) 사이에 수석이 빼어난 곳이 있으니 신림(新林)이다. 신림에서 가장 으슥하면서도 더욱 이채로운 곳이 자하동이다. 물이 양 산에서 흘러나온 것이 호리병 입 모양으로 신림동에서 합쳐진다. 강태사(姜太師) 서원(書院) 앞에서 꺾여 남으로 흘러든다.
>
> 근원을 따라 점점 동으로 몇 리를 가면 작은 봉우리가 수풀 끝에 보일락 말락 하는 것이 국사봉이다. 나무가 울창하고 인가가 은은한데 한 아름 세 그루 늙은 느티나무가 서 있다. 그 아래 이로당의 옛터가 있다. 이것이 신씨의 자하동 별업이다. 개울을 따라 위로 가면 갑자기 두 바위가 개울을 끼고 문처럼 서 있다. 여기서부터 바위가 커져서 개울 바닥이 온통 바위로 되

18 徐榮輔, 『竹石館遺集』 1책 「出洞」.

어 양쪽 벼랑에 이른다. 물가에 늘어서 있는 바위 중에 비스듬하게 서 있는 것은 용마루 같고,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것은 평상 같다. 색깔은 모두 갈아놓은 백옥과 같다. 바둑을 두어도 좋고 시를 써도 좋겠다. 그 꼭대기는 조금 평평하고 넓은데 작은 정자가 있다. 개울 동북쪽 꺾인 곳에 임해 있어 서남으로 개울물이 막 흘러나가는 것을 내려다본다. 연주대에서 정자 동쪽에 이르러 복류하던 실개울이 아래로 떨어져 작은 폭포가 된다. 그 곁에 '제일계산'이라 새겨놓은 글씨가 있다. 물이 정자 터를 돌아 굽이굽이 이어져 내려와 층층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부딪혀 울어댄다. 다시 빙 돌아 꺾어 정자 서쪽에 이르면 고여서 작은 소가 되는데 맑아서 털끝 하나까지 비출 만하다. 달빛이 일렁일렁 옆에서 비추면 처마가 흔들흔들 마치 수은이 형체 없이 흘러내리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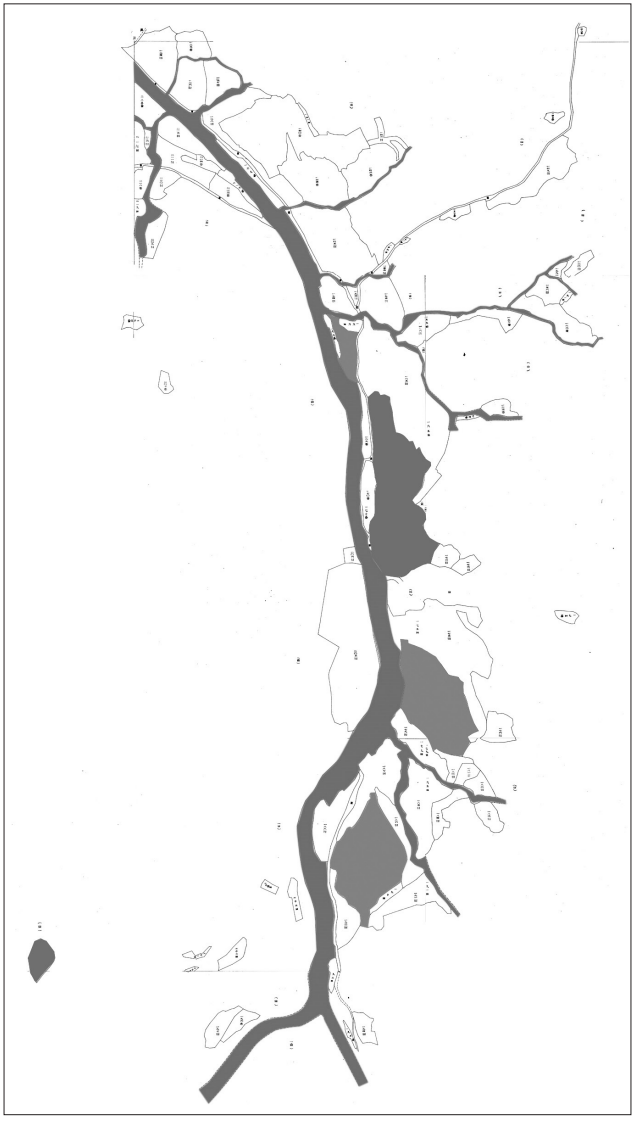
산의 지맥이 국사봉에서 구불구불 뻗어 물길을 따라 병풍처럼 빙 휘두르고 정자를 지나 서쪽으로 100여 보 가서 멈춘다. 아름다운 나무가 빽빽이 엉겨 있어 헤치고 올라가면 바르고 평평하여 몇백 돼기의 원림을 삼을 만한 곳이 나온다. 나무 중에는 철쭉이 많고 또 밤나무도 많다. 물 한 줄기가 여계담(女笄潭)에서 내려와 원림 서쪽 절벽에 이르러 멀리 돌아 자하동의 개울과 합쳐 흘러간다. 서쪽 봉우리에는 진인(眞人)의 연약단(煉藥壇)이 있다. 여계담은 또한 기이하고 빼어나다고 하지만 다 가 보지는 못하였다. 내가 애초에 자하동 주인과 약속하고 관악산 절정에 오르려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기록은 여기서 그친다.[19]

검지산은 지금 호암산이라 부른다. 호암산과 관악산 사이에 신림이 있다고 하였는데, 호암산 동북쪽 국기봉에서 발원한 개울과 연주대 서쪽에서 발원한 개울이 서울대 자연대 아래에서 합류한다. 신림은 자하동과 같다. 앞서 본 「시흥현지도」에는 다소 왜곡되어 있지만 삼성산과 관악산 사이로

19 서영보, 『竹石館遺集』 3책 「遊紫霞洞記」.

[그림 3] 1913년 측량한 1/5만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운암에서 내려온 개울과 삼성산 쪽에서 내려온 개울이 성주암 동쪽에서 합류하여 신림리(자하동)을 지나, 복은동을 거쳐 서원리로 내려간다. 우측 원당리로 내려온 개울이 봉천리(탑동)과 청릉리를 거쳐 서원리에서 합류하여 도림천이 된다.

내려온 개울과 삼성산과 호암산 사이로 내려온 개울이 일간정에서 만나고, 다시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탑동(塔洞)을 거쳐 내려온 개울과 우와피에서 합류한다. 이 개울이 곧 도림천이다. 이 글에서 강태사 서원에서 꺾어져 남으로 흐른다고 하였는데, 강태사 서원으로 인해 서원리, 지금의 서원동이 된 것이고 낙성대는 유래를 알 수 없는 3층 석탑이 있어 탑동으로 불렸다. 서원동에서 신대방동으로 도림천이 서쪽으로 꺾이는데 지금의 정확한 방위와는 조금 다르다. 강감찬을 제향하는 서원이 낙성대가 아닌 신림사거리 즈음에 있었다.



[그림 4] 1912년 작성된 지적도: 서울대 국사학과 김건태 교수가 서울대 일대의 지적도를 합쳐 만든 것을 원에스원 허윤정 대표가 보정한 것이다. 진한 부분은 대지와 경지인데 왼쪽 아래가 성주암이고 가운데가 서울대 대운동장이다. 이곳이 자하동이다. 조금 덜 진한 부분은 경지다. 대운동장 북쪽 정문 쪽에서 몇 가닥의 개울이 합쳐진다. 대운동장 남쪽이 대학본부고 다시 그 남쪽이 자연대와 농생대다. 그 사이로 관악산에서 발원한 개울이 내려와 폭포가 되었다. 일간정이 이곳에 있었다. 그 서쪽에 관악산야외식물원이 들어섰다.

[그림 5] 1796년 정수영(鄭遂榮)이 그린 「한임강명승도권」(漢臨名勝圖卷)(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검지산 일간정 부분. 우측에 "초가 정자가 시흥현 동북 10리 가까이 있다. 일간정이라 이름한 곳은 북으로 자하동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곳이다."(茅亭在縣東北近十里地 稱名一間亭者 北望紫霞洞 最好處也)라고 하였다. 개울 동쪽에서 자연대 쪽을 보고 그린 그림이다. 일간정 아래 다양한 모양의 바위가 늘어서고 우측에 폭포가 흘러내린다.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국사봉이 보이고 그 아래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는 곳이 이로당의 옛터다.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제일계산' 바위글씨가 나오는데 곧 최석정의 글씨를 새긴 것으로, 그 곁의 정자는 벽류정이라 이름을 붙이고자 하였던 일간정일 것이다. 뒤에서 다시 보겠거니와 서울대 자연대 서쪽에 있는 개울 곁에 일간정이 있었다. 서영보는 이 일대의 기암괴석을 자세히 묘사하였는데 지금도 이곳에서 이와 비슷한 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서영보가 자하동을 찾았던 바로 이태 전인 1796년, 정수영(鄭遂榮)이 그린 「한임강명승도권」(漢臨名勝圖卷)에서도 자하동의 일간정을 확인할 수 있다. 풍광이 서영보의 글에서 묘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일간정 우측에 폭포가 흘러내리고 개울가에는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다.

그리고 다시 그 북쪽 100여 보 떨어진 곳이 제법 넓어 정원을 둘 만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관악산 야외식물원이 조성되어 있으니, 참으로 묘하

다. 여계담이라 한 곳은 관악산호수공원이 조성된 곳 같다. 원래 이곳이 제법 개울 폭이 넓었는데 이를 호수로 만든 것이리라. 신위는 훗날 여계담을 두고 따로 시를 지었거니와, 계담이라 줄여 일컫고 이곳의 수석이 빼어나 종이를 만드는 지국(紙局)을 둘 만하다고 한 바 있다.[20] 비슷한 시기 강준흠(姜浚欽, 1768~1833)은 여계담을 여기담(女妓潭)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백 번 꺾어진 관악산 북쪽 개울이
마구 치달려 여기담에 떨어지네.
구슬이 사방에서 어지러이 흩어져서
궁상각치우 음악소리 담고 있는 듯.
맑은 햇살에 시골집이 환한데
외로운 연기가 산사에서 피어나네.
다시 듣자니 기이한 곳이
골짜기 남쪽에 많이 있다 하네.
百折冠陰水 奔流落妓潭
珠璣紛四散 宮羽若中含
澹日明村舍 孤烟起嶂菴
更聞奇絕處 多在洞天南[21]

관악산에서 발원한 개울이 구불구불 꺾어지며 북으로 달려 여기담으로 쏟아진다고 하였으니 여기담은 여계담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옥구슬과 음악소리라는 시각과 청각을 병치하여 여기담의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자하동 마을을 비추는 햇살과 인근 암자의 밥 짓는 연기도 더욱 풍광을 곱게 하

20 申緯, 『警修堂全藁』 책16 「女笄潭」과 책10 「始興雜詩」의 주석에 이러한 사실이 보인다.
21 姜浚欽, 『三溟詩集』 七編 「女妓潭」.

였다. 이 시의 주석에서 "어떤 이는 남자하동이 더욱 빼어나다고 한다."라는 주석을 달았다. 삼막사계곡으로 내려가도 빼어난 곳이 있다는 뜻이다. 그 서쪽 연약단은 국기봉 쪽 축단처럼 평평한 바위로 추정된다. 신위는 젊은 시절 상당한 시문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1786년 화재로 그의 글이 소실되었거니와 1810년 이전의 시는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에 실려 있지 않다. 그나마 남은 『분여록』에 젊은 시절 자하동에서의 풍류를 노래한 몇몇 작품이 실려 있다. 서영보의 문집과 함께 볼 때, 신위는 서영보와 함께 관악산의 여계담, 연약단과 그리고 자운암(紫雲菴), 사자암(獅子菴) 등 집안의 사찰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울려 시주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22] 이들의 유람에는 관악사에 기거하던 성재순(成載淳, 자 士亨, 호 鹿門)이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사가 함께하였는데 여계담 등 명승을 그림으로 그리기까지 하였다.[23] 서영보가 자운암에서 지은 시를 보인다.

> 자운암 이 암자는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 정상에서 날아 내려올 때도 길이 만 갈래.
> 바위 기운이 음산한데 향각이 닫혀 있고
> 소나무가 축축 드리워져 노승이 썰렁하네.
> 목어 소리 듣고 앉으니 마음이 깨이는데
> 보리밥 지어 재 올리고 길손도 공양하네.
> 멀리서 예불하는 산이 손님을 전송하려는 듯
> 이 가운데 에워싸고 있는 것 다 숲이라네.
> 紫雲蘭若到猶難 飛下層巔路萬盤

22 徐榮輔, 『竹石館遺集』 권1 「冠岳」, 「翌日諸人送我於女笄潭, 士亨爲畫, 諸人皆有詩」; 「暮還士亨來, 夜士亨畫山水, 漢叟畫竹, 使我爲詩, 强以一絕句應之」; 「復拈東坡韻」; 「十月之望, 期二客不至」; 「翌夜復用前韻」 등이 자하동과 관악산 유람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23 申緯, 『警修堂全藁』 책10 「始興雜詩」에 "성사형이 현산과 여계담 두 곳의 그림을 그렸고 죽석이 모두 기문을 남겼다.[成士亨有硯山女笄潭二圖, 竹石皆記之]"라고 하였다.

石氣陰陰香閣閉 松身落落老僧寒
木魚坐久發心省 麥飯齋時供客餐
遙禮諸峯如趁客 此中環合揔林端[24]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려운 자운암을 두고 이렇게 시를 지었다. 이 시의 주석에 따르면 자운암 앞에 큰 바위가 길에 임해 있는데 예전에는 바위의 뒤쪽을 따라갔지만 지관이 백호(白虎)를 범하는 것이 절에 이롭지 않다 하여 중이 바위 중간을 질러 잔도를 놓았고 이 때문에 바위의 형상이 화가의 '대부벽추'(大斧劈皴)의 기법과 같아 바위가 더욱 기이해졌다고 하였다. 지금도 자운암에서 거대한 바위를 볼 수 있는데 신위는 이를 칠성암(七星巖)이라 하였다. 또 이곳에서 백자(白瓷)를 만들었다고도 하였다.[25]

4. 신위가 노년에 찾은 자하동

젊은 날 자하산장에서의 독서를 바탕으로 하여 신위는 1799년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발탁되었고 그 후 비교적 순탄한 벼슬을 하였다. 1812년 진주겸주청사(陳奏兼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갔는데, 중국의 학문과 문학에 대한 안목을 크게 넓힐 수 있었다. 이때 옹방강(翁方綱)을 만났는데 이로부터 청의 문인들과 광범위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대내외에 크게 떨치게 되었다. 이후 신위는 승정원 승지와 대사간 등 청요직을 역임하면서 도성 안 장흥방(長興坊)에서 살았다. 오늘날 종로구 적선동과 내자동 일대 어느 곳으로 추정된다.

---

24 徐榮輔, 『竹石館遺集』 1책 「紫雲菴」.

25 申緯, 『警修堂全藁』 책10 「始興雜詩」; 책15 「紫雲菴」; 책15 「紫雲菴禪房之七星巖秋陰, 覓句擬作圖, 先得一詩」 등에 이러한 사실이 주석에 보인다.

그러나 바쁜 관직 생활로 신위는 자하동을 자주 찾지 못하였다. 비록 자하동에 살지는 못하였지만, 신위는 한강에서 보이는 검지산을 두고 "나루 앞은 원래 우리 집 산"(渡頭原是我家山)이라 하였거니와,[26] 자신의 호로 자하를 고수하였으며 또 중국의 문인들에게도 늘 자랑하였다. 청의 문인 오숭량(吳崇梁)이 그림을 구하여 신위는 장흥방의 집 벽려방(碧蘆舫)과 함께 「자하산장도」(紫霞山莊圖)를 그려 시를 붙여 보낸 바 있고, 웅앙벽(熊昂碧)이라는 청의 문인에게도 집 그림을 보낸 바 있다.[27]

그러다가 1822년 천릉(遷陵) 문제로 근처를 여러 차례 지나가면서 자하동을 찾고 20수 연작의 「시흥잡시」(始興雜詩)를 지었다.[28] "자하산 아래 이르지 못한 것이, 어언간 열아홉 해라."(不到霞山下 因循十九年)라고 하였으니 벼슬길에 오른 후에 거의 자하동에 찾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자하동을 돌아보고 신위는 깜짝 놀랐다. 젊은 시절 벗과 독서하던 방은 채소밭이 되었다. 게다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낯설어하여 아낙네까지 문을 기웃거렸다. "개울에는 물을 긷는 옹기들이 모여 있고, 숲에는 물레방아 도는 소리 요란한데, 창틈으로 엿보느라 푸른 치마 어른거리고, 문에는 사람보고 흰둥이가 컹컹 짓는다."(澗汲村罌集 林舂水碓喧 靑裙窺暎戶 白犬吠迎門)라고 하였다. 다음은 당시 자하동의 풍광을 그림처럼 그린 명편이다.

> 집을 에워싼 수양버들
> 붉게 물든 담쟁이넝쿨.
> 목면을 거둔 처마에는 눈발이 날리는 듯

---

26 申緯, 『警修堂全藁』 책7 「西江絕句」.

27 申緯, 『警修堂全藁』 책13 「寄謝吳蘭雪」; 책14 「自題紫霞山莊圖, 寄熊雲客」; 책16 「戊子間, 熊雲客昂碧, 題余紫霞山莊圖, 有長歌三十句. 時余職事鞅掌, 不遑屬和, 自歸山莊, 舊懷縈心, 乃發篋出此詩, 臨風朗讀, 多有棖觸. 始依韻和成, 然秋吟已逝, 未知雲客尙能主蔣氏西席否, 俟訪的信, 將以寄示也」 등에 자하산장도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이 그림들은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

28 申緯, 『警修堂全藁』 책10 「始興雜詩」.

밀가루 빻느라 절구에는 서리가 날리네.
들밥 내는 일이 한 해 내내 괴롭지만
막걸리 한 사발로 하루가 든든하다네.
겨울이 가까워 세금을 재촉하느라
아전이 다시 마루에 오르는구나.
繞屋水楊柳 紅酣薜荔裳
收花簷灑雪 磨麵磴飜霜
野饁終年苦 村醅一日康
催租冬月近 吏胥復登堂[29]

자하동의 집은 봄이면 수양버들이 늘어지고 가을이면 담쟁이넝쿨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여름이면 수확한 목면이 눈처럼 하얗게 날리고 빻아 놓은 밀이 서리처럼 날렸다. 이런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막걸리 한 사발로 농사의 괴로움을 달래었다. 서영보와 함께 노닐던 옛일을 생각하고 이미 이승을 떠난 그를 슬퍼하여 비감에 젖기도 하였다. 여계담, 성주암(聖住菴)과 자운암도 그 때문에 다시 돌아보았다.

그 후 요직인 강화유수로 나갔다가 1830년 윤상도(尹尙度)의 탄핵을 받고 자하동으로 물러났다. 원래 관악산에는 암자의 수가 99개였는데 신위 당시에는 23개만 남아있었다. 신위는 관악산의 그윽한 개울과 기암괴석을 찾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99곳의 암자도 모두 찾아내었다.[30] 다음 「절문에서 돌아오는 길에 멀리 자하산장이 보였다. 또한 선취가 있는 땅이라 마침내 이 시를 짓는다.」(寺門歸路遙見紫霞山莊尙亦一禪境也遂成此篇)는 지금의 서울대 일대를 담은 작품이다.

---

29 申緯, 「始興雜詩」.

30 申緯, 『警修堂全藁』 책15 「九十九菴吟藁序」. 『九十九菴吟藁』가 이 시기의 시집이다.

그림을 덮어쓴 개울가에 붉은 노을이 비치는데
수정 같이 맑은 땅 끝에 맑은 모래가 갈라 있네.
그 사이 달빛 아래 빨래하고 연기 속에 밭가는데
이 모두가 유마힐에게 꽃 뿌리는 여인의 절집이라.
천 개의 푸른 개울물을 주발 씻어 함께 마시고
사계절 끊임없이 피고 지는 꽃으로 공양을 올린다.
시 짓고 불공을 올리는 일이 무엇이 괴로우랴,
낙엽 쓰는 행각승 되려는 것도 벌써 사치일지니.
罨畵溪頭映紫霞 水晶境盡界晴沙
此間浣月耕煙者 摠是維摩天女家
洗鉢共餐千澗綠 拈香不斷四時花
作詩佛事吾何苦 掃葉頭陀願已奢[31]

자운암 정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자하동을 내려다보고 쓴 작품이다. 중국 절강성의 아름다운 엄화계(罨畵溪)에 비견할 만한 자하동의 개울, 그 위에 붉은 노을 자하가 어린다. 달빛 아래 빨래하고 안개 속에 밭가는 곳이 자하동이요, 도처의 암자에는 비구니가 꽃으로 공양을 올린다. 신위는 스스로를 낙엽 쓰는 행각승이라 하였다. 신위는 1827년 부인 조씨를 잃었다. 그로부터 호를 북선원소낙엽두타(北禪院掃落葉頭陀)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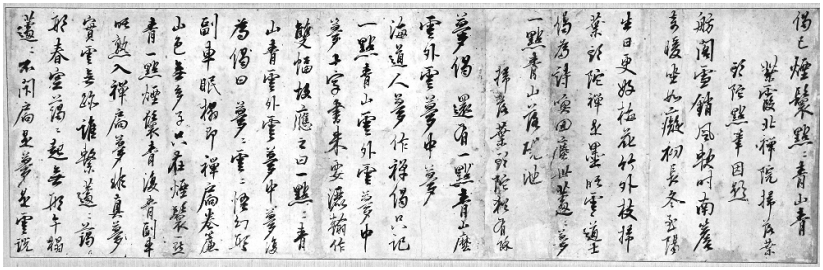
외로운 신위에게 즐거움이 하나 있었으니, 이웃에 사는 이씨 성의 나무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하고 밤에는 관솔불을 밝히고 누워서 그가 읽는 전기(傳奇)를 듣곤 하였다.[32] 최수선(崔守善)이라는 사람의 초가정(樵稼亭)도 인근 봉천리에 있어 가끔 그곳에서 노닐기도 하였다.[33]

---

31 申緯, 『警修堂全藁』 책15 「寺門歸路遙見紫霞山莊尙亦一禪境也遂成此篇」.

32 申緯, 『警修堂全藁』 책15 「李樵夫并序」.

33 申緯, 『警修堂全藁』 책15 「奉川崔氏求補書樵稼亭扁, 旣應之, 且題此詩, 以備樵稼故事」.



[그림 6] 신위가 스스로 '자하북선원 소낙엽두타'(紫霞北禪院 掃落葉頭陀)라 한 작품(서울대 박물관 소장), 좌우가 잘못 붙여져 있다. "[중간]海道人夢作禪偈, 只記一點靑山雲外雲夢中夢十字, 書來要灑翰作雙幅, 故應之曰, '一點點 靑山靑, 雲外雲 夢中夢.' 復爲偈曰, '夢夢雲雲悟幻形 副車睡榻卽禪扃 捲簾山色無多子 只在烟鬢一點靑', '一點烟鬢靑復靑 副車眠熟入禪扃 夢非眞實雲無迹 誰繫遽遽藹藹形', '春空藹藹起無形 午榻遽遽不閉扃 是夢是雲說[우측]偈已 烟鬢點點靑山靑' 紫霞北禪院掃落葉頭陀點筆因題 '舫閣雪消風軟時 南簷奇暝坐如癡 初長冬至陽生日 更好梅花竹外枝 埽葉頭陀禪是墨 眠雲大士偈爲詩 喚回塵世遽遽夢一點靑山落硏池'"라고 되어 있다. 문집에도 실려 있다. 벗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글씨로 추정된다.

그렇게 자하산장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신위는 다시 벼슬길에 올랐다. 1831년 형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각질(脚疾)로 부임을 못하다가 이듬해 4월 도승지로 나아갔다. 자하산장을 떠나 다시 서울 장흥방 집으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효명세자(孝明世子)가 양연산방(養硯山房)이라 편액을 내린 바 있는데, 누각 하나를 개축하여 편액을 걸었다. 아들 신명연(申命衍)으로 하여금 「포단몽환도」(蒲團夢幻圖)를 그리게 하고 홍현주(洪顯周)로부터 글을 받아 붙였다.[34] 잠시 평신진첨사(平薪鎭僉使)에 임명되어 나갔다가 1833년 서울로 돌아와 대사간이 되었지만, 강화유수로 있을 때 독직(瀆職)의 혐의를 받아 평산(平山)으로 유배되는 고통을 겪었다. 1834년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도승지에 올랐고, 이조참판, 대사간, 호조참판 등을 두루 거쳤다. 장흥방에서 가마를 타고 대궐로 출근하는 것이, 자하산장에서 예술을 즐기는 것보다 행복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가 자하동으로 돌아

34 신위, 『警修堂全藁』 책18 「兒子命衍, 畫蒲團夢幻圖, 爲海居道人, 題其側」.

오지 못하고 1845년 장흥방 집에서 죽었다.

5. 보론

신위는 자신이 사랑한 자하산에 묻혔다. 자하산은 바로 국사봉이다. 부인 조씨의 무덤을 조성하면서 옆을 비워 자신이 들어가려 마련해 둔 그곳이었다. 그러나 자하동이 개발되면서 충청도 결성(結城) 수룡동(水龍洞)으로 그의 넋이 갔다. 오늘날 자하동에는 자하 신위의 자취를 찾을 데 없다. 몇 편의 글과 그림이 서울대학교에 남아 있을 뿐이다.

2008년 8월 당시 서울대 인문대 이태진 학장이 자하동에 자리한 서울대학교에 자하연만 있고 자하동의 주인이었던 신위의 유적이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하여 약간의 기념물을 만들고자 하였다. 신위는 제대로 된 초상화가 없다. 1812년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燕京)에 갔을 때 중국인 왕여한(汪汝瀚)이 작은 초상 한 점을 그려 주었는데 '자하소조'(紫霞小照)라 부른다. 그러나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이 초상화는 안타깝게도 그 얼굴 형상을 알아볼 수 없다. 미술대 이용덕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어 등을 돌리고 자하연을 바

[그림 7] 왕여한(汪汝瀚), 「자하소조(紫霞小照)」(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8] 신위, 「석죽도」(서울대 박물관 소장)

라보는 자그마한 신위의 전신상을 세우게 되었다. 돈을 쌓아 둔 은행에 등을 돌리고 조선 선비가 사랑하던 물을 보게 하였으니 그 역시 뜻이 깊다.

그리고 그 곁에 신위의 그림 '석죽'을 돌에 얹었다. 신위는 바위와 대나무를 사랑한 문인이었다. 시서화 삼절로 칭송된 대로, 많은 대나무를 그린 그림과 이를 소재로 하여 쓴 글씨로 남아 있다. 신위는 1812년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올 때 「돌을 실은 그림에 쓰다」(題載石圖)라는 시를 지었는데 "가소롭다 기이한 자하객이여, 만 리 먼 곳 사신 갔다 돌을 줍다니"(崟崎可笑紫霞客 奉使萬里行拾石)라 하였다.[35] 아름다운 돌을 주워 보물처럼 포장한 다음 수레에 실었다. 돌은 주인이 되고 자신은 손님처럼 앉았다. 그리고 화가를 불러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다. 이렇게 바위와 대나무를 사랑하였기에 서울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바위와 대나무 그림을 표지석에 얹은 것이다.

[그림 8]은 비가 오는 날의 대나무 '우죽'(雨竹)을 그린 것이다. 잎이 아래로 쳐지고 더러는 바람에 나부낀다. 여기에 잘 어울리는 신위의 글씨도

35 申緯, 『警修堂全藁』 책1 「題載石圖」.

서울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폭으로 된 것 중에 하나를 복제하여 돌에 올렸지만, 여기서는 두 편 모두 보인다.

세상은 우아함을 미워하건만
자네는 온 마음이 맑디맑기에
빗속의 자태를 가지로 그려내니
그림 속 잎새 소리 들릴 듯하네.
時方讐雅態 君乃盡情清
雨貌枝能寫 毫端葉可聲

긴 대나무가 구름 위로 솟아
파란빛 당기며 버티고 섰으니
굳은 마디에 용을 휘감게 하고
가지에 봉황새를 기대게 하네.
자하가 그리고 쓰다
脩竹上干雲 彩翠支相控
繞節解從龍 依枝頻引鳳
紫霞寫因題

우아함을 질시하는 시대, '차군'(此君), 곧 자네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대나무만이 맑은 마음을 지녔다. 「석죽도」에서 보듯 비를 맞은 댓잎에 쏴하는 맑은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두 번째 작품은 대나무에 서린 용과 봉새를 칭송하였다. 이백(李白)의 「고풍」(古風)에서 이른 대로 "봉새는 굶주려도 좁쌀을 먹지 않는다"(鳳飢不啄粟). 봉새는 죽실(竹實)만 먹는다. 『시경』(詩經) 「권아」(卷阿)의 전(箋)에도 "봉황의 성질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이지 않고, 대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용은 대나무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대나무 퉁소에서 나는 소리를 늙은 용의 울음소리라 하고 죽

[그림 9] 신위의 칠언절구(서울대 박물관 소장)

순을 두고 용손(龍孫)이라 한다. 용과 봉새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대학교의 정신에 절로 부합한다. 여기에 더하여 자하연 동쪽에 젊은 시절의 시집 『분여록』에 실린 시를 하나 더 돌에 새겼다.[36] 1787년 무렵 자하동의 개울에서 지은 작품이다.

개울 앞 여린 보리 파릇파릇 돋고,
도랑 뒤 살구꽃 듬성듬성 피었네.
자하동서 우리 암자로 오르는 길에

36 성균관대 이현일 교수의 조언을 따른 것이다.

흰나비와 누런 벌이 날아다니네.

溪南細麥青青出 塹北杏花開正稀

紫霞洞口墳菴路 粉蝶黃蜂高下飛[37]

분암(墳菴)은 선영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암자인데 곧 자운암이다. 자하동에서 자운암으로 오르는 길에 쓴 작품인 듯하다. 자하동은 이른 봄, 보리가 막 푸른 움을 틔우고 살구꽃이 붉게 피었다. 분암으로 오르는 길에 흰나비와 벌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땅이었다.

이렇게 자하 신위가 떠난 자하동에 자하 신위의 자취를 채웠다. 자하동의 인문경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姜浚欽, 『三溟詩集』(한국고전번역원 DB)
卞季良, 『春亭集』(한국고전번역원 DB)
徐居正 등, 『東文選』(한국고전번역원 DB)
成海應, 『研經齋全集』(한국고전번역원 DB)
成俔, 『虛白堂詩集』(한국고전번역원 DB)
申緯, 『警修堂全藁』(한국고전번역원 DB)
申緯, 『警修堂集』(규장각 소장)
趙絅, 『龍洲遺稿』(한국고전번역원 DB)
李肯翊, 『燃藜室記述』(한국고전번역원 DB)
李瀷, 『星湖全集』(한국고전번역원 DB)
蔡濟恭, 『樊巖集』(한국고전번역원 DB)
崔錫鼎, 『明谷集』(한국고전번역원 DB)
洪直弼, 『梅山集』(한국고전번역원 DB)
문용식 역주(2009), 『輿誌圖書』, 흐름.
『始興縣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김은정(2001), 「관악산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한국한시연구』 9.

---

37 申緯, 『警修堂集』(규장각 소장) 『焚餘錄』 권1 「溪南」.

이종묵(2006), 『조선의 문화공간(4)』, 휴머니스트.
이현일(2006), 「紫霞詩 硏究」,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원고 접수일: 2023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23년 8월 4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8일

ABSTRACT

Cultural Landscape of Jaha-dong in Gwanaksan Mountain and Jaha Shin Wi

Lee, Jongmook*

This paper examines the cultural landscape of Jaha-dong, north of Gwanaksan Mountain, focusing on Shin Wi, the owner of Jaha-dong. The four valleys in the east, west, north, and south under the Yeonjudae of the summit of Gwanaksan Mountain were known as Jaha-dong; this paper considers Bukja-dong, commonly called Jaha-dong. The humanities landscape of Jaha-dong began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when the brothers Shin Yeo-seok and Shin Yeo-cheol, of the Pyeongsan Shin Clan, managed Irodang and Ilganjeong. After their descendant Shin Wi inherited Jaha Sanjang, the place was reborn as a meaningful space around the 19th century. When he was young, Shin Wi called his friend Seo Young-bo to write poems together, and Seo Young-bo recorded the humanities landscape of Jaha-dong as beautiful prose.

Along with literary works, this paper reconstructed this space by mobilizing data such as paintings by Jeong Soo-young in 1796, cadastral maps prepared in 1912, 1/50,000 maps measured in 1913, and photos taken in the 1950s or 60s. At the same time, the details and contents of the bust and monument of Shin Wi, which were created in the College of Humanities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ere introduced so that Jaha-dong could be remembered as a space with a humanities landscape.

Keywords Cultural Landscape, Jaha-dong, Shin Wi, Irodang, Ilganjeong, Seo Young-bo